정시모집 주요대학 지원 가능 점수(원점수 400점 기준)

■ 인문계

대학	군	모집단위	지원가능 점수
전남대	나	가정교육과	282
		경상학부	271
		경영학과	344
		경제학부	343
		교육학과	331
		국어교육과	351
		국어국문학과	331
		국제학부	271
		독일언어문학과	315
		문헌정보학과	329
		문화콘텐츠학부	256
		불어불문학과	315
		사학과	327
		사회학과	332
		시각정보디자인학과	270
		신문방송학과	338
		심리학과	341
		역사교육과	327
		영어교육과	355
		영어영문학과	331
		윤리교육과	311
		인류학과	318
		일어일문학과	316
		자율전공학부(인문)	337
		정치외교학과	338
		중어중문학과	330
		지리교육과	322
		지리학과	320
		지역개발학전공	332
		특수교육학부	266
		한중문화학전공	255
		해양경찰학과	281
		행정학과	347
서울대	나	경영대학	391
		국어교육과	386
		농경제사회학부	386
		사회과학계열	388
		사회교육	384
		소비자아동학부	383
		외국어교육계열	385
		인문계열	387
		자유전공	387.5
고려대	가	가정교육과	378
		간호학과	364
		경영대학	387.5
		국어교육과	384
		국제어문학부	384.5
		국제학부	385
		미디어학부	387
		영어교육과	385
		인문학부	383
		자유전공학부	386
		정경대학	387
연세대	가	경영학과	390
		경제학부	389
		국어국문학과	384.5
		불어불문학과	383
		사학과	384
		사회학과	384
		언론홍보영상학부	388
		영어영문학과	386
		자유전공	387.5
		정치외교학과	387.5
		중어중문학과	385
		행정학과	387.5
서강대	나	EU문화계	377
		경영학부	381
		경제학부	381
		사회과학부	380
		영미문화계	378
		인문계	376
		커뮤니케이션학부	379

■ 자연계

대학	군	모집단위	지원가능 점수
전남대	가	간호학과	358
		건축학부	307
		고분자·섬유시스템공	309
		기계시스템공학부	312
		동물자원학부	328
		물리교육과	304
		바이오에너지공학과	339
		산림자원학부	332
		산업공학과	311
		생물공학과	345
		생물학과	318
		생활환경복지학과	343
		수의예과	357
		수학과	316
		수학교육과	361
		식물생명공학부	330
		식품영양학과	337
		신소재공학부	319
		에너지자원공학과	307
		응용생물공학부	342
		응용화학공학부	329
		의류학과	332
		의예과	388
		자율전공학부(자연)	303
		전기공학과	332
		전자컴퓨터공학부	308
		지구과학교육과	299
		지구환경과학부	331
		지역·바이오시스템공	329
		토목공학과	297
		통계학과	350
		화학교육과	354
		환경공학과	297
서울대	나	간호대학	365
		과학교육계열	377
		기계항공공학부	382
		물리·천문학부(광역)	382
		산림과학부	366
		생명과학부	384
		식품영양학과	374
		의류학과	376
		의예과	394
		자유전공	383
		전기·정보공학부	383
		컴퓨터공학부	380
고려대	가	간호대학	361
		건축학과	366
		기계공학부	366
		수학교육과	378
		신소재공학부	369
		의과대학	391
		이과대학	368
		임상병리학과	362
		정보통신대학	362
		컴퓨터교육과	364
		환경생태공학부	366
연세대	가	건축공	374
		기계공학부	377
		물리	377
		생명공	382
		수학	383
		신소재공학부	376
		의예	393
		전기전자공학부	377
		정보산업공	374
		천문우주	368
		치의예	392
서강대	나	기계공학계	366
		자연과학부	366
		전자공학계	366
		컴퓨터공학계	365
		화공생명공학계	368

〈자료 : 나눔입시 컨설팅연구회〉

■ 어려웠던 2013 수능 가채점 교실 표정

중상위권 수리 나·외국어 점수↓ 울상

문과 등급컷 작년보다 5점 하락 진학지도 혼란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다음 날인 9일 가채점을 마친 수험생 중 상당수는 기대했던 점수에 미치지 못했다며 울상을 지었다.

중상위권(내신 2~4등급) 수험생들은 EBS교재 연계율이 유지돼 다소 쉽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했던 외국어·수리 나 영역에서 의외로 점수가 낮게 나오자 크게 당황했다. 광주 고교 교사들은 문과생들의 주요 과목(언·수·외)의 등급컷 점수가 지난해에 비해 평균 5점 가량 떨어진 탓에 진학지도에 큰 혼란이 따를 것으로 우려했다.

이날 오전 광주시 광산구 숭덕고등학교 3학년 교실. 학생들은 전날 치른 수능 가채점 결과를 서로 확인하느라 촉각을 곤두세웠다. 많은 학생은 홀가분한 표정으로 친구들과 점수를 비교하며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지만 예상보다 낮은 점수에 실망한 학생들도 있었다.

이모(19)군은 "수리·과학탐구에 자신 있었는데, 수리 '가'가 너무 어렵게 출제돼 당황했다"며 "점수가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는 데다 내년부터 수능이 수준별 시험으로 바뀌는 것 때문에 재수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최상위권 수험생들은 이번 시험이 변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무난했다는 반응이었다.

서울대에 수시원서를 냈다는 박모(19)군은 "수리 영역에서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출제됐지만, 특별히 고전한 과목은 없다"며 "수시 발표결과를 보고 차분히 정시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들은 가채점 결과 이과생들의 진학지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수능이 어렵게 출제됐지만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변별력이 없었던 시험이라고 분석했다. 최상위권 이과생들의 주요과목(언·수·외) 1등급 구분 점수가 평균 4점 정도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의·치·약대 계열은 물론 주요 국립대에서도 치열한 눈치작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했다.

장광재(숭덕고) 대교협 대입상담센터 대표강사는 "이과생들의 경우 언·수·외국어 1등급 점수가 평균 4점가량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며 "의·치·약대를 지원하는 상위권 학생들의 하향지원과 눈치작전이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상위권, 중상위권을 막론하고 지나치게 하향지원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입시전문가들은 대체로 지난해 수능보다 어렵게 출제된 외국어 영역과 수리 나형이 중상위권 수험생들을 중심으로 올해 입시의 관건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박연종(송원고) 전국진학지도협의회 공동대표는 "외국어 영역, 수리 나형이 어려웠지만, 가채점한 원점수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자신이 잘 본 시험영역을 비중 있게 반영하거나 가중치를 주는 대학을 찾는 것이 성공적인 입시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응급처치 이렇게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10일 광주시 북구 매곡동 다목적강당에서 학생과 일반인이 참가하는 응급처치법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경연대회에 참가한 105개 팀 525명이 응급처치 실력을 겨루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불량 수갑에 119 부른 경찰

열쇠 부러져 절단 위해

공무집행방해 피의자에게 채운 수갑의 열쇠가 부러져 119구조대가 경찰서로 출동했다.

11일 광주북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6시17분 광주북부경찰로부터 피의자 조모(52)씨에게 채워 놓은 수갑이 풀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119구조대원을 보내 수갑을 절단했다.

조씨는 이날 새벽 4시30분께 북구 문흥동 한 아파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우산지구대로 연행됐다.

우산지구대 직원들은 만취 상태인 조씨가 난동을 부리자 수갑을 채워 북부경찰서 형사과로 이송한 후 수갑을 풀기 위해 열쇠를 돌리는 순간 두 동강나 결국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수능성적 비관 女 재수생 목포서 숨진 채 발견

수능성적을 비관한 재수생이 수능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다.

목포경찰은 11일 "지난 9일 오전 9시35분께 목포시 상동 모 상가 건물 주차장에 김모(여·21)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다시 봤으나 성적이 기대만큼 나오지 못해 비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온가족 눈앞 사촌형수 살해범 '권고형' 13년 넘은 17년 선고

시어머니 등 동네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촌형수를 흉기로 살해한 40대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촌형수의 자녀 9명 가운데 8명이 미성년자인데다 동네주민들 사이에 있는 사촌형수를 확인한 뒤 현장에서 흉기로 찌르는 등 범행이 잔혹하다며 양형기준을 초과하는 형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는 최근 사촌형수 민모(46)를 살해한 혐의(살인 및 협박)로 기소된 우모(46)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이 설정한 권고형 상한인 징역 13년6월을 넘어선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범행 당시 우씨는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다짜고짜 욕설을 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말리자 집에 가서 흉기를 들고 와 자신의 뒷주머니에 숨긴 채 그곳에 있던 주민들의 얼굴을 일일이 확인한 후 피해자를 찾아내 가슴과 옆구리를 찌르는 등 잔혹했다"고 판시했다.

또 "현장에는 피해자의 시어머니를 포함해 다수의 동네 주민들이 있었고, 피해자의 자녀 9명 가운데 8명은 미성년자로 갑자기 어머니를 잃게 된 자녀들과 범행을 지켜본 피해자의 시어머니도 깊은 정신적 충격을 받는 등 피해가 심대하다"고 덧붙였다.

우씨는 18년 전 자신이 처벌받은 강간치상 사건의 진범이 사촌형이라고 주장, 이 문제로 사촌형수를 괴롭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나윗참 〈8687〉 김종두

9선 목포농협 조합장 광주고법 "자격 없다"

광주고법 민사 2부(김정만 부장판사)는 최근 조합장 선거 차순위 득표자인 김모(63)씨가 목포농협을 상대로 낸 조합장 선거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당선자 오모(77)씨는 조합원이나 조합장 지위에 있을 수 없다"고 선고하고 1심 판결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는 논을 휴경해 농업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합원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출소 닷새만에 또 절도 덜미

쌍나팔

○…강도죄로 2년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닷새만에 또다시 강·절도 행각을 벌이던 20대가 물건을 훔치러 들어간 가정집에서 집주인에게 제압당해 경찰서행.

○…11일 목포경찰에 따르면 황모(27)씨가 이날 새벽 2시께 목포시 용당동 한 주택에 침입해 현금 2만원을 훔쳐 달아나다가 집주인(41)에게 목덜미를 잡혀 경찰에 넘겨졌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전과는 있지만 어수룩한 황씨가 집주인을 보자마자 얼어붙었다"며 "황씨를 검거하는데 기여한 시민에게 표창과 함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